

계곡에 발 담그고, 별보며 추억 쌓고 ...

# 여름 체험학교 어디로 갈까

## 광주·전남 사찰, 초·중·고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다채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 사찰에서 초·중·고학생을 위한 다양한 수행마당이 펼쳐진다.

금년에 마련된 여름학교는 수행만을 강조하기보다 계곡에서 발 담그고 명상하기, 군수에게 듣는 우리고장이야기, 다도 도예 체험, 영화관 나들이 등 체험위주 프로그램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고불총림 백암사 천전암(주지 해만)이 8월 4~6일 개최하는 중학생을 위한 수련법회가 대표적이다.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암

자탐방, 계곡에 발 담그기 명상, 별보며 추억 찾기 등 수행에 재미를 곁들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061-392-0533)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는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 '다도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8월2일부터 9일까지 7박8일간 고학년 대상으로 열리는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는 차 있을 따고 뛰는 제다체학과 다도, 차 문화유적 탐방, 차와 음악명상이 펼쳐진다. (061-534-5502)

섬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완도 신홍사(주지 법일) 장보고 학교도 손님준비를 마치고 방학을 기다리고 있다. 금년으로 3회째인 장보고학교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신홍사 교육관에

서 한문 사경교실, 검도, 다도, 도예체험 등을 펼친다. 또한 군수초청 특강과 놀이공원, 영화관 나들이를 통해 도시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061-554-2634)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명상학교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올해도 여름 명상학교를 운영한다. 7월 29~30일 양일간 명상, 요가, 심성프로그

램, 물놀이 등이 진행된다. (062-223-3163)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도 7월 22~24일 14차 어린이 수행학교를 운영한다. 3학년 이상 고학년을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체험놀이 마당으로 펼쳐진다. (062-263-4660)

광주 한마음선원(지원장 혜월)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10~12일 경주남산 성지 순례를 실시하고, 중등부는 7월 26~29일 오대산, 치악산 일대 성지순례를 통해 호연지기를 키운다. (062-373-8801)

이준엽 기자



## 생활 속 불교문화

### 영광 법성포 매항비

예로부터 민중들은 항을 통해 부처님 세상에 나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좋은 항을 얻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행이다. 매항(埋香)이 그러하다.

고려 말, 이 땅의 민중들은 관료들의 부패로 살기가 힘들었다. 더구나 왜구 출몰로 바닷가 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했다. 이들에게 희망은 56억7000만년 후에 출현하는 미륵부처님이었다.

어서 빨리 미륵불이 출현하기를 발원했다.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갯벌에 향나무와 참나무를 묻었다. 천년 세월이 흐른 뒤에 침향(沈香)이 되어 땅위로 나오면 미륵세계가 될 것이라고 발원했다.

향나무를 묻은 그 자리에 증표를 남겼다. 매항비이다. 길에서 흔히 보는 투박한 돌덩어리에 울퉁불퉁 몇 자 적은 것이 전부다. 현재까지 발견된 매항비는 20여기에 이른다. 대부분 서해안 바닷가에 있다. 세종실록에 보면 "나주 목사 권국화



매항비를 처음 발견해 노인정 옆으로 옮겨놓은 하연식씨와 매항비.

달샘을 파자 겹고 단단한 나무가 나왔다. 침향이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침향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다. 수백년간 갯벌에서 소금물에 다져진 침향은 단단하기가 쇠덩이와 같다.

## “매항은 천년前 묻어놓은 나눔 향”

### 미륵불 출현 발원 ... 갯벌에 향나무 묻어

가신안 팔금도에서 땅에 묻힌 향과 비석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남 사천에 있는 매항비는 비교적 글씨가 많이 남아있어 보물 614호로 지정됐다. 마라나다 존자가 백제땅에 처음 불상과 경전을 들여온 법성포에도 매항이 이뤄졌다. 외탄천과 법성포가 만나

는 입암마을이다. 특히하게도 이곳에서는 1371년, 1410년 두 번에 걸쳐 매항의식이 있었다. 지금은 일제 때 간척으로 갯벌이 논으로 변했지만 예전에는 매항비 앞에까지 배가 닿았다고 한다.

마을 주민 하연식(82) 씨는 "매항비 인출도 모르고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배의 맞줄을 매면 '빚뎀'로 불렀다"고 증언한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꽃동산으로 밀려났다가 마을 제방이 무너지자 득을 막는 돌이 되었다. 그 뒤 매항비를 찾아 마을을 방문하는 이가 늘어나자 '빚뎀'에 글씨가 새겨졌던 것이 기억났다. 당시 마을이장인 하 씨가 제방에서 돌을 꺼냈다.

60년대 말, 입암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매항비에서 50m쯤 떨어진 응향을 피우면 그늘음이 나지 않으며 은은한 향내가 멀리간다. 별레가 접근하지 않아 스님들의 사리함 내부에 쓰이기도 한다. 고급 약재로도 쓰였고 견출 수 없는 향의 신성함으로 금과 같은 무게로 거래되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매항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가뭄을 대비해 묻었다"고 주장한다. 흥년이 들면 갯벌 위로 올라오는 침향을 가져다가 양식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그 뒤 희유하게도 흥년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침향이 나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매항도 전설이 되어버렸다. 수산 스님은 "침향을 찾겠다고 갯벌을 파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매항은 천 년 전에 묻어 놓은 '나눔의 향'이고,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것이 침향이다"고 강조한다. 영광=이준엽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 “한국 사찰은 아름다운 종합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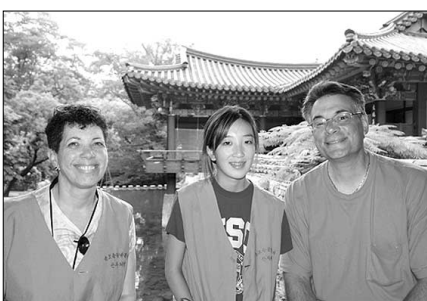
“한국 사찰은 그대로 아름다움 종합예술입니다. 사찰에 담긴 과학과 신비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7월 6-8일,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서 열린 미국 입양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에밀리 로즈(16·사진 가운데) 양은 “오랜 역사와 깊은 생각이 담긴 한국 사찰문화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사찰체험 소감을 밝혔다.

“백인사회에서 살다보니 외모 때문에 항상 특별한 존재로 의식하며 살았다”는 에밀리 로즈 양은 “모처럼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집애 있는 듯하여 편안하다”고 덧붙였다.

에밀리 로즈 양의 아버지 부르스 레즈 멘(53) 씨는 “에밀리가 예체능에 특별한 재주가 많은데 한국에 와서 보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문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자랑하겠다”는 에밀리 로즈 양은 “이번 여행으로 태어



###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자랑하고 싶어”

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웃었다.

송광사에서 열린 입양아 템플스테이에는 에밀리 로즈를 비롯한 입양아와 가족 26명이 참가해 사찰순례, 예불, 다도,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불교와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순천=이준엽 기자

## 아름다운 생명나눔 영화시사회

### 콜롬버스 시네마, 현혈증 2000매 전달

소아암백혈병 환우와 현혈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아름다운 영화시사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 이하 생명나눔)는 7월 8일 광주 콜롬버스 시네마에서 생명나눔가족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영화시사회를 가졌다.

영화관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는 백혈병 환우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영화관 김택일 관장은 생명나눔 정원재 상임이사에게 현혈증 2000매와 사랑의 패지지금품 40개를 전달하고 백혈병 환우를 격려했다(사진).

콜롬버스 시네마는 생명나눔이 펼치는 아름다운 나눔의 집 2호점으로, 영화 관람



객이 현혈증을 기증하면 무료영화관람권을 증정해 현혈증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혈증 전달에 이어 백혈병 환우와 가족, 자원봉사자들은 영화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준엽 기자

## 목포교도소 재소자 50명 수계



목포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가 7월 13일 교도소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경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회는 잘못을 여러 사람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다”며 “진정한 실행의 시작은 참회로 시작한다”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5일개강

#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최봉수(동국대학교수)	주명철(동국대학교수)
	불교성당론	최종석(금강대학교수)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김상현(동국대학교수)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	정병조(동국대학교수)
	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차차석(동국대학교수)	김상영(숭가대학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영규반 100명, 흥신반 10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경제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6월 15일~ 2006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영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관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경제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경제문화학과 : 2006년 9월 5, 6, 7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구로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부대기아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센터 064) 743-4184

\* 특선시랑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듯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신국판 / 312쪽 / 9,500원

돈벌이만 쫓는 빙의 전문가,  
귀신 쫓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반쪽자리 퇴마사들,  
인간과 귀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빙의를 말하지 마라.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은이/ 일광(逸廣)

‘도인(道人)의 길’은 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치료하면 남들이 믿겠습니까? 주수만 적어서 사흘 만에 병을 고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젠 제물도 갖추고 하다못해 기도드리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남들이 믿지요.”  
허허, 그런 그였다. 하지만 이미 불속(佛窟)을 접어둔 선생은 사람들에게 걸신된 귀신이나 천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고자 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도인의 길이기...